

오세훈 “성수 삼표부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 만들 것”

유럽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그랜드 캐널독 콘셉트 韓에 접목
최첨단 하이테크기업 공간 조성”

신산업 성장거점 도시·자연 등
어우러진 수변복합도시 목표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16일(현지시간)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그랜드 캐널독 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삼표부지와 성수 일대를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더블린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 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콘셉트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가 성수전라정비구역과 연계해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를 전 세계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



16일(현지시간) 곡선 형태의 유리벽 외관이 돋보이는 ‘도크랜드 컨벤션 센터’를 찾은 오세훈 시장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려들어 일과 주거,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블린 도크랜드(항만 지역)에 위치한 그랜드 캐널독 지구는 업무·주거·상업·문화가 복합된 글로벌 IT산업 중심

의 업무단지다. 수변을 따라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문화시설 등이 자리해 세계적인 수변 문화복합도시로 각광받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날 오 시장은 더블린시의 수변도시

평소화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극장의 커튼을 형상화한 외관을 지닌 무대 콘셉트로 건축된 ‘도크랜드 대운하 극장’과 곡선 형태의 유리벽 외관이 돋보이는 ‘도크랜드 컨벤션 센터’를 찾았다.

오 시장은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계획과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담아 성수 일대를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만들어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2009년 현대차가 지으려고 했던 110층 규모의 신사옥인 GBC 건립을 통해 삼표부지 일대 한강변 랜드마크 조성이 추진됐으나 한강변 높이 규제 등으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성수 일대를 신산업 성장 거점이자 도시·자연·첨단산업·문화가 어우러진 수변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삼표 부지는 첨단 기업이 집적된 업무 지구인 ‘글로벌 퓨처 콤플렉스(GFC)’로 만들어 기술·광고·미디어·정보 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한다. 이곳에는

첨단기술을 도입한 신개념 스마트 오피스이자 국제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축물(LEED 플래티넘)이 들어선다. 서울숲 등 주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층부는 선곤(Sunken·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이나 덮개공원으로 연결한다.

서울숲 일대에는 한강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수변 랜드마크 타워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서울숲 안의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 전시, 문화체험, 콘퍼런스 등이 가능한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그랜드 캐널독 지구 방문에 앞서 더블린 맨션하우스에서 캐롤라인 콘로이 더블린 시장과 면담하고, 양 도시 간 교류강화를 위한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는 기후 위기 대응, 교통, 문화, 관광 등 행정 전반으로 교류 분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 2조 들여 송도에 제5공장 건립

송도 11공구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생산능력 78만 l … 2025년 가동 목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5공장’ 증설을 통해 압도적인 글로벌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 올라선다. 총 78만 리터 생산능력을 갖추고 위탁개발생산(CDMO)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제5공장 증설을 결의, 제2바이오캠퍼스 시대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제5공장은 인천 송도 11공구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건설된다. 총 투자비는 1조 9800억원, 생산능력은 18만 리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9월 가동을 목표로 상반기 중 착공에 돌입한다. 제5공장이 완공되면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규모인 총 78만4000 l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5공장 증설로 제2바이오캠퍼스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36만㎡에 달하는 11공구 부지에는 제5공장을 시작으로 추가 생산공장 및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등이 순차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투자금은 총 7조5000억원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1바이오캠퍼스에 이어 제2바이오캠퍼스가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고객사 위탁생산(CMO)의 예상 수요와 바이오 의약품 산업 성장세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제5공장 증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누적 수주 금액은 95억 달러(약 12조46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20억 달러(2조 60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누적 수주 건수는 CMO 74건, 위탁개발(CDO) 101건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3공장은 풀(full) 가동에 가까운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부분 가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조감도.

을 시작한 4공장의 경우 고객사 8곳의 11개 제품에 대한 CMO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26개 고객사와 34개 제품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논의 중이다. 글로벌 빅파마 가운데서는 20곳 중 12곳과 CMO 계약을 체결했다.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아웃

소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4공장 이후에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제5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제2바이오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내 초격차 경쟁력을 달성하고 글로벌 톱티어(Top-Tier)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원자재·탄소중립법, 韓 기업에 공급망 다변화 계기”

EU집행위, CRMA·NZIA 초안 공개
무역협회 “재활용 수요증가 예상
우리기업, 전략적 접근 필요할 것”

유럽연합(EU)이 전략 원재자와 탄소중립산업의 역내 제조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에겐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핵심 원자재의 EU 역내 광물 채굴·가공과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원자재법(CRMA)’과 탄소 중립 기술 제조 역량 강화와 관련해 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취지로 유럽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불린다.

핵심 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은 10%, 제련·정제는 40%, 재활용은 15%

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다. 사실상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현재 EU는 전기차와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EU는 아울러 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역내에서 에너지 저장과 전기 동력 모빌리티용 배터리 등 전략 기술을 제조하고 상당량의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대상 기업은 2년마다 공급망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사내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가 2030년까지 주요 탄소 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의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조빛나 지부장은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 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U가 중국을 제외한 교역국과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우리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지부장은 “핵심 원자재 재활용 기술 투자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폐배터리 수거, 재활용, 소비가 유럽 역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배터리 재활용 시장 연 30% 성장 전망”

≫ 1면 ‘제3국 원자재 수입’서 계속

초안에는 직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폴란드에 공장을 운영 중인 LG에너지솔루션, 헝가리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SDI와 SK온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 “더 커진다”

CRMA 전기차 모터 부품인 영구자석의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정보 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향후 설정될 세부 조항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연구와 공장 현지화 진행돼야 유럽 시장 점유

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다. CRMA는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역량은 필수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활약하고 있는 곳은 포스코홀딩스, 성일하이텍, 아이에스티엠씨, 유미코아 등이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과의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기업라이사이클(Li-Cycle)에 6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6%를 확보하며 재활용 분야에 투자 중이다. 라이사이클은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1세대 전기차 재활용이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본격 성장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